

## 대학생의 독서태도 및 독서량, 성격유형 간 상관관계 연구\*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Reading Attitude, Reading Amount, and Personality Type of College Students

정 대 근 (Dae-Keun Jeong)\*\*

#### 〈 목 차 〉

I. 서론	IV. 연구 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설계	

**요약:**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독서태도와 독서율, 성격유형 간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학생의 독서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독서태도는 재미를 위한 독서량, 종이책 독서량, 개인 독서량, 전자책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격유형에서 개방성은 독서량 및 독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외향성은 독서량 및 독서태도에 전자책 독서량을 제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독서태도와 독서율 간의 높은 상관성을 기반으로 대학생이 재미있고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환경 제공 및 자료의 비치가 필요하다. 둘째, 외향성은 독서량 및 독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활동 중심으로 동적인 독서 활동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활동과 연계한 교내 독서클럽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대학생 독서, 독서태도, 독서량, 성격유형, 독서성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attitude, reading amount, and personality type of college students, and to prepare a plan to improve the reading rate. As a result of the study, Reading attitudes have been shown to affect reading volume, paper book reading amount, personal reading amount, and e-book reading amount. In the personality type, openness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reading and reading attitudes. On the other hand, the attention was negatively affecting the reading amount and the reading attitude, except for the amount of e-book reading.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are as follows. First, college students need a library environment and a library environment that can read books that can read books.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reading amount of extraversion, it is necessary to conduct dynamic reading activities in the center of the activity and conduct a local reading club activity linked to community activities.

**KEYWORDS:** College Students Reading, Reading Attitude, Reading Amount, Personality Type, Reading Propensity

\* 이 연구는 2022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dkjeong@gwangju.ac.kr / ISNI 0000 0004 6360 8718)

• 논문접수: 2022년 2월 23일 • 최초심사: 2022년 2월 27일 • 게재확정: 2022년 3월 11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1), 211-230, 2022. <http://dx.doi.org/10.16981/kliss.53.1.202203.211>

※ Copyright © 202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독서를 통해 삶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사회·문화적 여가활동을 영위하게 된다. 또한 독서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적자원들의 능력을 함양하고 경제·문화·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성장에 이바지할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독서문화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2021)에서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보면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1년간(2020.09~2021.08) 교과서나 학습참고서, 수험서 등을 제외하고 일반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비율이 47.5%로 2명 중 1명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종이책만 놓고 보면 40.7%만이 1년에 1권 이상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1994년 86.8%이던 독서율이 2013년까지는 72.2%로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5년 67.4%, 2017년 62.3%, 2019년 55.7%, 2021년 47.5%로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의 독서 현실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2019)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대학도서관 연간 이용자는 1,685,490명으로 연간 대출권 수가 24,153,402권에 달하였으나, 2015년 연간 대출자 수는 1,232,257명으로 급감하였으며, 대출권 수 역시 12,259,680권으로 급감하였다. 2018년에는 이보다 더 감소하여 연간 대출자 수 1,139,761명, 대출권 수 11,152,307권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대학도서관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독서실태 조사(2021)에서 대학생이 포함된 20세~29세의 종이책 독서율 및 독서량을 보면 2013년 88.2%에서 2021년 60.3%로 28%나 감소하였으며, 독서량 역시 2013년 11.7권에서 2021년 4권으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전자책 및 오디오북을 포함할 경우 2021년 77.4%(8.5권)로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생의 독서율 및 독서량의 감소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서 성향과 성격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성격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독특성 혹은 개인차를 반영하며, 일관되고 안정적인 행동패턴과 관련이 있어 성격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노안영, 강신영, 2003). 한윤옥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성격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도서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격유형에 따라 독서에 대한 행동패턴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 사회생활에서 보이는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황 요인을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개인 내적인 요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 성격적 요인이나 가치관에 따라 상황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한규석,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독서율 및 독서태도가 성격유형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독서율 향상 방안을 찾으려 한다.

## 2. 선행연구

개인의 독서성향과 성격유형 간 상관관계 연구는 성격유형과 독서태도, 독서프로그램, 독서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성격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보제공 연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독서와 성격에 관한 초기 연구는 1930~1950년대에 교육학자와 아동 심리학자를 중심으로 독서 치료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Vera(1942)는 성격부적응과 독서장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성격부적응은 독서를 잘하는 집단보다 독서를 못하는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났고, 성격유형에 따라 독서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Stewart(1950) 역시 3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장애와 성격부적응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성격부적응이 독서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Schutte & Malouff(2004)는 호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 이론을 적용하여 독서선호와 성격유형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개방성과 성실성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독서와 성격유형 사이의 국내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임성미(2001)는 서울 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MBTI 성격유형과 독자의 심리적 성향 관계를 고찰하였으며, 성격유형과 독자의 심리적 성향(읽기 흥미, 읽기 태도, 읽기 목적, 읽기 효능감)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에는 주로 에니어그램 성격검사 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한윤옥(2010)은 경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독서성향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감성형이 타유형(사고형, 본능형)에 비해 책을 더 읽고 싶어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만 독서방식에 대한 성격유형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진환, 한윤옥(2014)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적용한 독서지도의 효과에 관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실험집단에서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 모두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조현양, 조미아(2018)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유형별 맞춤형 도서 제공이 초등학생의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친구관계나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학습활동에 대한 즐거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전을 느낄수록 초등학생의 독서성향인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시간, 독서량 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독서태도

독서란 책이나 글을 읽고, 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으로 그 정의가 비교적 명확하나 태도의 경우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변우열, 2012) 독서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태도에 대한 정의를 보면 국립국어원 웹사이트(2021)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몸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 ‘일이나 상황에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심리학 분야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행동을 준비하는 주관적인 혹은 심리적인 상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Erwin, 2001).

독서태도를 정의한 Mathewson(1994)은 독서태도를 ‘목적 및 내용에 대한 평가, 내용에 몰입하는 감정, 독서행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읽기 준비 상태’로 행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보라(2020)는 독서태도를 ‘독서 자세와 같은 행동적 요소뿐 아니라 책을 읽고 느끼는 쾌감, 새롭게 구성된 스키마 등 인지적·정의적 요소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정대근(2016)은 ‘개인이 독서 자료나 독서에 대해 갖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으로 독서를 실시하거나 회피함에 있어 일관되게 실행하는 심리적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독서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독서에 대한 신념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인지적 요소, 독서에 대한 감정이나 평가를 나타내는 정의적 요소, 실질적으로 독서하려는 행동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행동적 요소의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 더하여 독서에 대한 나쁜 감정이 독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온 인지적 측면인지 독서에 대한 나쁜 감정 즉 정의적 측면인지를 파악해야 한다(옥정인, 1999). 독서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기반으로 Mathewson(1994)은 독서의 태도가 독서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으며, Mckenna, Kear, Ellsworth(1995)은 독서태도는 독서몰입과 실천을 매개로 독서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2. 성격유형

#### 가. 성격의 개념

성격이란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구별해 주는 특징적 사고, 감정 및 행동양식으로 정의되어왔으며, 인간의 심리적 행동에 대한 공통성과 차별성을 결정하는 경향성과 특성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심리적 행동은 시간에 따라 연속성을 가지며 특정 순간의 사회적·생물학적 압력의 단일한 결과로서 쉽게 이해될 수 없다(Maddi, 1996).

성격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Allport(1961)는 ‘성격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을 결정하는 심리신체 체계이고, 개인 내에 있는 역동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Carver와 Scheier(2000)에 의하면 성격은 ‘인간의 행동, 사고, 감정의 특유한 패턴을 창조하는 심리 신체적 체계인 인간 내부의 역동적 조직’이다. Burger(2000)는 성격은 ‘일관된 행동패턴 및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 과정’이고, Liebert와 Liebert(2011)는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행동 반응에 영향을 주는 육체와 마음을 가진 특정 개인의 독특하며 역동적인 특성들의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

노안영과 강신영(2003)은 다양한 성격이론가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격이 함축하고 있는 여러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성격은 인간의 사고, 감정, 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행동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성격은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성격은 인간 적응의 측면을 반영한다. 즉, 삶은 적응의 과정이며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성격을 발달시키고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성격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공통성을 내포한다. 사람들을 어떤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서로가 공유하는 행동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내향성 혹은 외향성으로의 분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는 성향에 의해서이다. 넷째, 성격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개인의 독특성 혹은 개인차를 반영한다. 즉 성격연구는 사람들의 공통성뿐 아니라 인간 개개인이 갖는 독특한 측면 혹은 개성에 대한 탐구에 관심을 둔다. 다섯째, 성격은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인 행동패턴과 관련된다. 성격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성격에 일관성이나 안정성이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여섯째, 성격은 개인 내부의 역동적이며 조직화된 특성을 반영한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이유는 개인의 조직화된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성격은 생존에 필요한 욕구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감정이나 행위 등으로, 관찰을 통해 판단될 수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성격은 개인의 내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관된 행동패턴을 보이는 조직화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성격 5요인 이론

성격의 분류체계 중 하나인 성격 5요인 이론은 Goldberg에 의해 처음 명명되었으며,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들 연구자가 제시한 성격의 5가지 요인은 개방성(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등이다. 성격의 5요인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동일, 홍성두, 인효연, 2006).

연구자	연구내용
Allport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동의 내적 심리적 근거에는 일관성과 안정성이 있고 개인차를 잘 나타내주는 특성인 심리적 구성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구성체를 성격의 요인 탐구함
Allport & Odbert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면서도 개인차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특성을 찾기 위해 웹스터 영어대사전에서 18,000개의 성격을 기술해주는 술어들을 요약하여 그들이 몇 개 범주의 특성변인으로 구성되는가를 분류함
Cattell	Allport와 Odbert의 목록들을 가지고 다차원적 성격구조를 염두에 두고 분석한 결과, 35개의 성격 변인을 추출함
Tupes & Christal	서로 다른 8개 표집에 대해 Cattell의 변인목록을 사용하여 동료평가, 임상적 평가, 교사평가를 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5요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들이 나타낸 요인들은 친화성, 외향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문화로 구분함
Norman	동료평정의 요인분석 연구에서 5요인 구조를 재발견하고, 이 5요인들을 각각 외향성, 순응성, 통제성, 정서적 안정성, 교양(culture)이라고 명명함
Goldberg	기존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이들 요인들을 최초로 5요인(big five)이라고 명명하였으며, 형용사 어휘를 다양한 표본과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5요인의 적합성을 주장함

출처: 김동일, 홍성두, 인효연(2006)의 연구 내용을 재구성함

〈그림 1〉 성격의 5요인 개발과정

### III. 연구설계

####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성격유형 검사를 위해 사용한 검사문항은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2011)이 개발한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이다. 성격 5요인 검사문항인 NEO-PI-I는 총 2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설문문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NEO-PI를 기반으로 1989년 총 60문항의 간략판 NEO-FFI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간략판 모델들이 개발되었고, 본 설문문항은 간편판 모델 중 John and Srivastava에 의해 개발된 BFI 44문항을 기반으로 15문항을 추출하였으며, NEO-FFI 준거 변인들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검사문항은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 외향성, 친화성 각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역산항목을 두어 신뢰성을 높였다.

독서태도에 관한 설문문항은 McKenna & Kear(1990)의 독서태도 설문지(20문항), Alan &

Lynn의 Denver 독서태도 검사 17문항(Rhodes, 1993), Gambrell(1996) 등에 의해 개발된 독서동기 설문지(20문항), 옥정인(1999)의 읽기 태도 설문지(40문항)를 기반으로 개발한 정대근(2016)의 독서태도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표 1〉 설문 문항 구성

변인		세부 문항		문항수	
성격 유형	개방성	자신의 경험을 주도적으로 추구하고 평가하는지의 여부를 측정	창의적인(P1), 독창적인(P6), 상상력이 풍부한(P11)	3	15문항
	성실성	사고, 감정, 행동에서 동정심부터 적대감까지의 연속선을 따라 개인의 대인관계 지향성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측정	완벽한(P2), 효율적인(P7), 믿음만한(P12)	3	
	신경증	심리적 디스트레스, 비현실적 생각, 과도한 열망과 충돌, 부적응적인 대처 반응을 얼마나 나타내는지를 측정	침울한(P3), 우울한(P8), 걱정이 많은(P13)	3	
	외향성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 정도와 강도를 측정. 활동 수준, 자극에 대한 요구, 즐거움 능력 등을 측정	조용한(*) (P4), 수다스러운(P5), 외향적인(P6)	3	
	친화성	목표지향적 행동을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목표지향적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를 측정	사려 깊은(P5), 이타적인(P10), 용서를 잘하는(P15)	3	
독서 성향	독서 태도	(RA1) 책을 가장 좋아함, (RA2) 책을 많이 읽음, (RA3) 시간날 때 마다 독서함, (RA4) 독서보다 다른 일을 좋아함(*), (RA5) 문제 해결을 위해 책을 읽음, (RA6) 읽고 싶은 책이 항상 있음, (RA7) 책을 선물받았을 때 기분 좋음, (RA8) 독서 시간은 지루함(*), (RA9) 돌아다니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이 좋음 (RA10) 과제를 위한 독서 외에는 안함(*)		10	14문항
	독서량	종이책독서량, 전자책독서량, 개인독서량 인식 재미를 위한 독서량		4	
일반사항		성별, 학년, 대학형태, 대학소재		4문항	

(\*)는 역산항목임.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개인의 독서태도는 독서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독서 연구에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연구 결과 중 하나는 독서성취와 독서태도와 관련성이며, 또 다른 하나는 독서성취와 독서량 사이의 관련성이다. 이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하였다(윤준채, 김영란, 2008).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의 독서태도, 독서량, 독서성취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태도가 대학생의 독서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독서태도가 종이책과 전자책 독서량, 재미를 위한 독서량, 개인 독서량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개인의 성격유형이 독서성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Schutte와 Malouff(2004)는

독서선호와 성격유형 사이에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조현양, 조미아(2018)는 성격유형에 적합한 도서를 제공할 경우 독서태도, 독서량 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즉 성격유형과 독서 성향 사이에는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격유형에 따른 독서성향 중 독서태도와 독서량을 중심으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으며, 독서량을 구체화하여 성격 유형인 종이책과 전자책 독서량, 재미를 위한 독서량, 개인독서량 인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5월 6일~21일까지(3주간) 이루어졌으며,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총 응답 인원은 323명이었으며, 모두 유효하여 323건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응답자 일반현황 및 독서량

설문응답자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74명(22.9%), 여성이 248명(76.8%)으로 여성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학년은 1학년이 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학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 지역은 제주를 포함한 호남권역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상권(27%), 서울·경기권(19%)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형태는 사립대학이 86%로 국공립 등 기타에 비해 많이 응답하였다.

<표 2> 응답자 일반현황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	74(22.9)	대학형태	국공립	39(12.1)
	여	248(76.8)		사립	278(86.1)
	미응답	1(0.3)		기타	6(1.9)
학년	1학년	139(43.0)	대학소재	서울경기권	62(19.2)
	2학년	90(27.9)		충남권	16(3.4)
	3학년	46(14.2)		경상권	87(26.9)
	4학년	43(13.3)		호남권	156(48.3)
	기타	5(1.5)		기타	2(0.6)



설문응답자의 독서량을 살펴보면 종이책의 경우 월간 1-3권을 읽는 학생이 6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혀 읽지 않는 학생이 25.4%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책의 경우 전혀 읽지 않는 학생이 51.1%로 응답자의 과반수는 전자책을 전혀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월간 1-3권을 읽는 학생은 전체의 29.4%로 나타났다. 종이책과 전자책의 독서량에 있어서 월간 7권 이상 읽는 학생은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읽는 학생이 더 많았다. 개인독서량에 대한 인식은 전체의 49.2%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21.7%는 매우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해 10명 중 7명 이상이 자신의 독서량에 대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재미를 위한 독서는 한 달에 1-2권 읽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주일에 1-2권, 한 학기에 1-2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 독서량 및 인식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종이책 독서량 (월)	전혀 읽지 않는다	82(25.4)	개인 독서량 인식	매우 충분하다	5(1.5)
	1-3권	200(61.9)		충분하다	26(8.0)
	4-6권	35(10.8)		보통이다	63(19.5)
	7-9권	2(0.6)		충분하지 않다	159(49.2)
	10권 이상	4(1.2)		매우 충분하지 않다	70(21.7)
전자책 독서량 (월)	전혀 읽지 않는다	165(51.1)	재미를 위한 독서량	매일	29(9.0)
	1-3권	95(29.4)		일주일 1~2권	66(20.4)
	4-6권	38(11.8)		한 달 1-2권	102(31.6)
	7-9권	11(3.4)		한 학기 1-2권	48(14.9)
	10권 이상	14(4.3)		1년 1-2권	40(12.4)
계		323(100)		거의 읽지 않음	38(11.8)

## 2. 영향요인 분석

### 가. 측정도구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서태도검사문항 및 성격유형검사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적재량이  $\pm 0.5$  이상일 때 유의하다고 보는데, 독서태도 검사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5번 문항의 경우 요인적재량이 0.361로 0.5보다 낮아 삭제하였다. 따라서 독서 태도 문항 분석은 5번 문항을 제외한 총 9개 문항으로 진행하였으며, 해당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0.872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4〉 독서태도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구분	요인분석	신뢰도	요인분석	신뢰도
	전체문항		5번 삭제	
RA1	.783	.861	.786	.872
RA2	.768		.769	
RA10	.761		.770	
RA3	.751		.750	
RA8	.702		.709	
RA6	.688		.677	
RA7	.673		.667	
RA4	.604		.609	
RA9	.603		.613	
RA5	.361		삭제	

성격유형 검사도구의 경우 요인분석 결과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나, 외향성은 신뢰도분석 시 신뢰도계수가 0.126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성격유형 4번 문항을 삭제하고 재실행한 결과 0.767로 상향되었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0.747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각 요인별 신뢰도 역시 0.750~0.885로 양호하였다.

〈표 5〉 성격유형 검사 도구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구분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	친화성	외향성	신뢰도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	친화성	외향성	신뢰도
	.885	.794	.804	.750	.126		.885	.794	.804	.750	.767	
P6	.892	.163	-.065	.103	.116	.707	.891	.156	-.064	.091	.145	.747
P1	.883	.129	.002	.069	.095		.883	.125	.001	.067	.102	
P11	.862	.114	.103	.156	.047		.860	.110	.105	.154	.075	
P2	.112	.828	-.095	.066	.071		.115	.828	-.098	.074	.085	
P7	.182	.808	-.090	.062	.121		.179	.797	-.088	.040	.189	
P12	.093	.804	.040	.276	.000		.093	.805	.041	.285	.050	
P3	-.020	-.093	.884	-.113	-.109		-.018	-.087	.882	-.102	-.127	
P8	.079	-.113	.843	-.189	-.078		.084	-.103	.839	-.169	-.132	
P13	-.013	.048	.792	.245	.004		-.019	.041	.798	.221	.080	
P10	.119	.256	.032	.791	.138		.114	.246	.036	.773	.235	
P15	.046	-.058	-.053	.765	.096		.046	-.062	-.054	.766	.143	
P5	.187	.299	-.030	.762	-.129		.186	.307	-.026	.792	-.065	
P9	.173	.170	.025	.213	.775		.160	.115	.026	.075	.906	
P14	.151	.235	-.242	.337	.708		.144	.193	-.246	.239	.784	
P4	-.010	.064	.055	.172	-.629		삭제					

#### 나. 상관관계 분석

성별, 학년, 독서량과 독서태도, 성격유형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독서량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독서량과 독서태도 사이에도 정(+)의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독서량과 성격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 등 일부 성격유형에 있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태도와 성격유형 간에는 개방성, 신경증, 외향성 항목에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독서량, 독서태도, 성격유형 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일반		독서량				독서 태도	성격유형				
		성별	학년	독서량 인식	종이책 독서량	전자책 독서량	재미 독서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	외향성	친화성
일반	성별	1	-0.040	-.146**	-0.062	-0.036	-0.085	0.040	-0.073	0.005	.148**	-0.006	0.008
	학년		1	-0.035	-0.001	0.009	-.115*	0.025	-0.057	.134*	-0.098	-0.070	-.168**
독서량	독서량 인식			1	.463**	.223**	.200**	.468**	.182**	0.000	-0.001	-0.087	-0.061
	종이책 독서량				1	.188**	0.086	.507**	.248**	.145**	0.052	-0.012	0.087
	전자책 독서량					1	.177**	.292**	.134*	-0.009	.141*	-0.078	-0.095
	재미 독서량						1	.607**	.225**	-0.026	0.102	-.146**	-0.055
	독서태도							1	.278**	0.064	.117*	-.208**	0.008
성격 유형	개방성								1	.322**	0.011	.315**	.285**
	성실성									1	-.132*	.343**	.373**
	신경증										1	-.204**	-0.061
	외향성											1	.350**
	친화성												1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다. 독서량과 독서태도 간 영향 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독서태도가 대학생의 독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서태도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독서량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태도의 영향이 가장 큰 영역은 재미를 위한 독서로 36.8%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종이책 독서량(25.7%), 개인독서량 인식(21.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영향력이 적은 영역은 전자책 독서량(8.5%)으로 독서태도가 전자책 독서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독서태도가 독서량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R <sup>2</sup>	F	p
		B	표준화 오류	베타			
독서량	종이책 독서량	0.505	0.048	.507	0.257	110.777	.000
	전자책 독서량	0.440	0.080	.292	0.085	29.913	.000
	개인 독서량 인식	0.611	0.064	.468	0.219	89.950	.000
	재미를 위한 독서	1.263	0.092	.607	0.368	186.979	.000

#### 라. 독서량과 성격유형 간의 영향 관계

본 연구에서는 종이책 독서량, 전자책 독서량, 개인 독서량 인식, 재미를 위한 독서량 등 독서량과 성격유형이 독서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종이책 독서량과 성격유형 간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산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성격유형이 종이책 독서량에 미치는 영향은 8.2%로 나타났다. 5가지 성격유형 중 개방성과 외향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방성의 경우 독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외향성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종이책 독서량과 성격유형 간 영향 관계 분석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	R <sup>2</sup>	p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1.129	.251		4.503	.000	.286	.082	.000
개방성	.130	.031	.246	4.160	.000			
성실성	.066	.038	.105	1.713	.088			
신경증	.021	.029	.039	.709	.479			
외향성	-.060	.029	-.126	-2.044	.042			
친화성	.016	.041	.024	.397	.692			

전자책 독서량과 성격유형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설명력은 5.9%로 낮게 나타났다. 개방성 및 신경증의 경우가 전자책 독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친화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외향성의 경우 종이책 독서량과는 다르게 전자책 독서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전자책 독서량과 성격유형 간 영향 관계 분석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	R <sup>2</sup>	p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1.541	.384		4.017	.000	.243	.059	.002
개방성	.148	.048	.186	3.095	.002			
성실성	.018	.059	.018	.298	.766			
신경증	.095	.045	.119	2.120	.035			
외향성	-.055	.045	-.076	-1.225	.221			
친화성	-.123	.063	-.121	-1.968	.050			

개인독서량 인식과 성격유형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격유형은 개인독서량에 6.4%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책 독서량과 유사하게 개방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외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에 있어서는 종이책 독서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개인독서량 인식과 성격유형 간 영향 관계 분석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	R <sup>2</sup>	p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2.286	.332		6.894	.000	.253	.064	.000
개방성	.176	.041	.254	4.243	.000			
성실성	-.005	.051	-.006	-.104	.918			
신경증	-.027	.039	-.039	-.697	.486			
외향성	-.090	.039	-.144	-2.317	.021			
친화성	-.074	.054	-.083	-1.362	.174			

재미를 위한 독서량과 성격유형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성격유형은 대학생의 재미를 위한 독서량에 11%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5요인 중 개방성 및 외향성이 재미를 위한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방성은 재미를 위한 독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외향성은 재미를 위한 독서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재미를 위한 독서량과 성격유형 간의 영향관계 분석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	R <sup>2</sup>	p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3.332	.516		6.461	.000	.331	.110	.000
개방성	.347	.064	.314	5.389	.000			
성실성	-.036	.079	-.028	-.461	.645			
신경증	.054	.060	.049	.903	.367			
외향성	-.206	.061	-.205	-3.389	.001			
친화성	-.084	.084	-.059	-.994	.321			

#### 마. 독서태도와 성격유형 간 영향관계 분석

성격유형이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격유형은 독서태도에 18.1%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높은 개방성은 독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향성은 독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독서태도와 성격유형 간 영향 관계 분석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	R <sup>2</sup>	p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2.850	.238		11.993	.000	.425	.181	.000
개방성	.192	.030	.361	6.449	.000			
성실성	.044	.036	.070	1.203	.230			
신경증	.028	.028	.054	1.027	.305			
외향성	-.161	.028	-.335	-5.771	.000			
친화성	.000	.039	.000	-.003	.997			

### 3. 논의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연구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였다. 하나는 독서태도와 독서량과의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독서성향과 성격유형에 관한 것이다.

첫째, 대학생의 독서태도와 독서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독서태도는 대학생의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서태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미를 위한 독서로 36.8%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종이책 독서량 25.7%, 개인 독서량 인식 21.9%였다. 즉, 독서태도가 좋을수록 재미를 위한 독서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종이책 독서량도 늘어나며, 독서의 필요성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최근 실시된 국민 독서실태 조사(2021)에서 나타난 대학생들의 독서량이다. 대학생이 포함된 20세~29세 그룹의 독서량은 2019년 8권에서 2021년 4권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tanovich(1986)는 매튜 효과(Matthew effect)를 통해 독서태도와 독서량, 독서능력 간의 상호관련성을 설명하였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잘 알려진 매튜 효과는 독서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독서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이는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발달시키며, 독서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다시 독서량을 증가시켜 독서능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독서능력이 낮은 학생은 부정적인 독서태도를 지니게 되며 부정적 독서태도는 독서량을 감소시켜 독서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 대학생들의 낮은 독서량은 결국 독서능력 및 독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연결되고 이는 지속적으로 독서량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Mathewson(1994)의 독서태도 모형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잘 나타나 있는데 독서태도는 독서의 의도를 통해 독서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독서행위에서 오는 인지적 만족감과 정서적 만족감은 독서태도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독서태도와 독서량 사이의 상호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독서태도와 재미를 위한 독서량 사이의 높은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Stanovich(1986)나 Mathewson(1994)의 이론에 따르면 독서태도는 독서 과정에서 얻게 되는 즐거움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독서량 역시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의 독서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재미를 위한 독서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재미를 위한 독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에 대학생들이 편하게 즐기거나 휴식하며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대학생의 즐거움을 자극할 수 있는 독서리스트를 마련하고 이를 비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독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국민독서실태조사(2021) 결과 대학생들의 종이책 독서량은 감소하고 전자책 독서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종이책 독서량은 독서태도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나 전자책 독서량은 8.9%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전자책

독서의 경우 감정이나 운동, 지적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나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의 기능은 저하되고,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만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전자책의 경우 실질적인 독서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tvN 인사이트, 2020). 독서와 전자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지만, 대학생의 전자책 독서율 증가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보고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독서성향과 성격유형 간의 관계이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성격유형은 독서량에 5.9%~11%, 독서태도에는 18.1%로 큰 영향은 아니지만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 중 개방성은 독서태도 및 독서량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향성은 전자책 독서량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태도 및 독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방성은 자신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처신하는 성격유형으로 개방적인 사람은 탐구심이 강하고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며, 고정되고 고착된 사고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것을 수용하는 유형이다(현성용 외, 2015).

독서는 인간이 정보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의사결정 능력,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는 개방성의 대표적인 측정 지표인 상상력, 창의력, 독창성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즉,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불리는 개방성을 키우는 것은 독서태도 및 독서량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모든 인간은 하나의 성격유형이 아닌 다양한 이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방성 측면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독서태도 및 독서량에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진 외향성의 경우 내향성의 반대적 개념으로 개인 관심의 초점이 사회적이고 활동적이며, 남들과 어울리는 데 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성격유형이다. 이용관(2021)은 독서여부와 독서량에 미치는 사회·문화·경제 자원을 분석하였는데, 이중 독서량과 문화·여가 활동, 사회관계망 및 레저시설 이용은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활동이 많을수록 독서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독서의 경우 문화·여가 활동과 대체재의 관계로 활발한 문화·여가 활동은 독서량의 감소로 이어지며, 외향성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활동을 즐기는 유형으로 독서태도 및 독서량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이용관(2021)의 연구에서 보면 독서량이 많지 않은 저독서자나 중독서자의 경우, 시민단체 가입이나 지역단체 가입과 독서량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향적 성향이 높은 성격유형의 독서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단체를 통한 모임 및 독서모임과 적극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교내 독서클럽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높은 활동성을 감안하여 정적인 독서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활동과 겸하는 동적인 독서활동의 제공이 필요하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독서량(종이책 독서량, 전자책 독서량, 개인독서량 인식, 재미를 위한 독서량), 독서태도, 성격유형 간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서태도는 재미를 위한 독서에 36.8%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종이책 독서량 25.7%, 개인 독서량 인식 21.9%였다. 전자책 독서량은 8.9%로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량과 성격유형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격유형이 대학생의 독서량에 미치는 영향은 5.9~11%로 나타났다. 개방성의 경우 대학생의 독서량에 모든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외향성은 전자책 독서량을 제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자책 독서량에 외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신경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친화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이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18.1%로 나타났으며, 개방성의 경우 독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외향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독서 생활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독서태도는 독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재미를 위한 독서량의 경우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생들이 학업을 위한 독서가 아닌 재미를 위한 독서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카페 등이 포함된 열린공간을 대학도서관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대학생을 위한 여가독서 코너 및 도서리스트 제공이 필요하다. 국민 독서실태 조사(2021) 결과 대학생들의 종이책 독서량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독서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을 읽는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나, 독서량과 독서태도 간의 관계를 보면 재미를 위한 독서량, 종이책 독서량, 개인독서량 인식에 비해 전자책 독서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책의 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성격유형과 독서량 및 독서태도의 관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개방성은 독서량 및 독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외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의 독서태도를 개선하고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활동중심의 동적인 독서활동의 도입이 필요하며, 사회활동 등을 즐기는 외향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활동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교내 독서클럽 등의 독서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독서율과 독서태도, 성격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성별, 지역별 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성격유형의 경우 인간은 하나의 성격유형이 아닌 다양한 유형이 혼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9). 교육통계연보. 세종: 교육부.
- 국립국어원 (2021. 2. 10.) 표준국어대사전. 출처: <https://stdict.korean.go.kr/>
- 김동일, 홍성두, 인효연 (2006). Big Five 성격 요인에 기초한 청소년 성격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열린교육연구*, 14(1), 289-305.
-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1(1), 47-65.
- 노안영, 강신영 (2003).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백진환, 한윤옥 (2014).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적용한 독서지도의 효과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45-64.
- 변우열 (2012). 독서태도 모형 분석을 통한 독서태도 조사 설문 내용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139-159.
- 옥정인 (1999) 읽기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 윤준채, 김영란 (2008). 중학생 독자의 독서 태도 발달 경향에 관한 연구 I. *국어교육연구*, 43, 159-184.
- 이용관 (2021). 독서 행태 영향요인 분석: 독서여부와 독서량에 미치는 사회·문화·경제 자원의 영향을 중심으로. *통계연구*, 26(3), 66-86.
- 임성미 (2001). MBTI 성격유형과 독자의 심리적 성향의 관계 연구. *심리유형과 인간발달*(국립한국심리유형학회지), 8, 99-127.
- 전보라 (2020). 대학생용 독서태도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독서연구*, 56, 247-277.
- 정대근 (2016). 성격유형이 청소년의 독서생활에 미치는 영향 연구. *현대사회과학연구*, 20, 109-126.
- 조현양, 조미아 (2018). 성격유형별 맞춤형 도서 제공이 초등학교생의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 - 학교행복감과 독서성향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23-46.
- 한규석 (2017).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윤옥 (2010). 성격유형과 독서성향 관계에 기초한 독서치료 가능성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25-59.
- 한윤옥, 백진환, 장해숙, 이보라 (2012). 어린이의 성격유형에 따른 선호도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5-34.
- 현상용 외 (2015). 현대 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Erwin, P. (2001). *Attitudes and Persuasion*. 고은경 역(2006). 태도와 설득. 서울: 시그마프레스.
- Liebert, R. M. & Liebert L. L. (2011). *Liebert & Spiegler's Personality: Strategies and Issues* (8th. ed.). 조현춘, 조현재, 문지혜 옮김(2011). 성격심리학. 서울: 센케이저러닝코리아.
- TvN Insight (2020. 10. 6.). 미래수업: 온라인에 사는 알파세대.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e0uRn4h53Do&t=36s>
- Allport, G.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urger, J. M. (2000). *Personality* (5th ed). California: Wadsworth/Thomson.
- Carver, C. S. & Scheier, M. F. (2000). *Perspective on Personality* (4th ed). Boston: Allyn & Bacon.
- Gambrell, L. B. (1996). Creating classroom cultures that foster reading motivation. *The Reading Teacher*, 50, 14-25.
- Maddi, S. R. (1996). *Personality Theories: A Comparative Analysis* (6th. ed.). New York: Books/Cole.
- Mathewson (1994). Model of attitude influence upon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 of Reading* (4th. ed.).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1131-1161.
- Mckenna, M., Kear, D. J., & Ellsworth, R. (1995). Children attitude toward reading: a national survey. *Reading Research Quarterly*, 30(4), 934-956.
- Mckenna, M. C. & Kear J. D. (1990) Measuring attitude toward reading: a new tool for teacher. *The Reading Teacher*, 43(9), 626-639.
- Rhodes, L. K. (1993). *Literacy Assessment: A Handbook of Instruments*. Portsmouth: Heinemann.
- Schutte, N. S. & Malouff, J. M. (2004). University student reading preferences in relation to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Reading Psychology*, 25(4), 273-295.
- Stanovich, K. E. (1986). Matthew effects in reading: some consequenc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acquisition of literacy. *Reading Research Quarterly*, 21(4), 360-407.
- Stewart, R. S. (1950). Personality maladjustment and reading achieve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20(2), 410-417.
- Vera, S. M. (1942). A critical study of certain personality factors as determining elements in a remedial reading program. *Catholic Educational Review*, XL, 145-161.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un, Woo-Yeol (2012). A development of the contents for the reading attitude survey questionnaire through the analysis of reading attitude mode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139-159.
- Cho, hyounyang & Cho, Mia (2018). The effect of providing books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ir personality type on their reading attitud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happiness and reading tendenc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1), 23-46.
- Erwin, P. (2001). *Attitudes and Persuasion*. Ko, Eunkyong ed. (2006). *Attitudes and Persuasion*. Seoul: Sigmapress.
- Han, gyuseok (2017). *Understanding Social Psychology*. Seoul: Hakjisa.
- Han, Yoonok (2010).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bibliotherapy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sonality type and reading tenden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3), 25-59.
- Han, Yoonok, Paek, Jinhwan, Jang, Haesook, & Lee, Bora (2012).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reference books according to the children's personality typ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3), 5-34.
- Hyeon, Sangyong et al. (2015). *Understanding Modern Psychology*. Seoul: Hakjisa.
- Jeon, Bo-Ra (202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reading attitude test tool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56, 247-277.
- Jeong, Daekuen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ype on reading lifestyle for adolescent. *Journal of Modern Social Science*, 20, 109-126.
- Kim, Dongil, Hong, Seongdoo, & In, hyoyeon (2006). A validation study of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based on Big Five factors for adolescents in Korea.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4(1), 289-305.
- Kim, Jihyeon, Kim, Bokhoan, & Ha, Munsun (2011).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Big Five inventory.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1(1), 47-65.
- Lee, Youngkwan (2021). Analyzing the influence factors of reading behavior: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resources on reading probablity

- and reading volume. *Statistical Research*, 26(3), 66-86.
- Liebert, R. M. & Liebert L. L. (2011). *Liebert & Spiegler's Personality: Strategies and Issues* (8th. ed.). Cho, Heonchon, Cho, heonjae, & Moon, jihyeo ed. (2011). *Personality*. Seoul: CENGAGE Learning Korea.
- Lim, Sungmi (2001). Relationship between reader's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inclin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of Psychological Type*, 8, 99-127.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 2021 National Reading Survey.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Education (2019). *Yearbook of Education*.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1, February 10) *Standard Korean Dictionary*. Available: <https://stdict.korean.go.kr/>
- No, Anyoung & Kang, Sinyoung (2003). *Personality Psychology: for Understanding and Growth of Human Being*. Seoul: Hakjisa.
- Ok, Jungin (1999). *A Study on the Factors of Influencing the Attitude toward Reading*. M.A. thesis, Major in Korea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Paek, Jinhwan & Han, Yoonok (2014). A study on effect of reading guidance program based on Enneagram of persona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2), 45-64.
- TvN Insight (2020, October 6). *Future Lecture: Alpha Generation living in online*. Available: <https://www.youtube.com/watch?v=e0uRn4h53Do&t=36s>.
- Yoon, Junchae & Kim, Youngran (2008). The developmental trends in middle schoolers' attitude toward reading I.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43, 159-184.